# 북스

Books

# 근대 세계는 바다에서 태어났다

## 문명과 바다

### 주경철 지음

저자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다. '대항해 시대', '문화로 읽는 세계사'의 주경철(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은 국내 서양사(史) 관련 저작물의 대표선수다.

주 씨가 근대 세계사를 '바다'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 책 '문명과 바다-바다에서 만들어진 근대'를 펴냈다.

저자는 '바다'라는 키워드를 통해 전 지구적인 문명 교류와 갈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제한된 교류 이외에는 서로 고립돼 발전해 오던 세계 여러 문명권들이 15세기 이후, 특히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바다를 통해 본격적으로 소통하기 시작했고, 그 소통이 진정한 세계사의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게 글의 출발이다.

저자는 기존의 서구 중심주의에서 탈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세계사를 들여다봤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디딘 10월 12일. 미국은 이날을 '콜롬버스의 날'로 기념한다. 그러나 아메리카의 다른 나라, 예컨데 볼리비아는 '원주민 저항의 날'로 부른다.

책은 모두 8부, 50꼭지의 글로 구성돼 있다. 1부 '아시아의 바다에서'는 인도양이 유라시아 대륙의 여러 문명들이 교류하는 중심무대였음을 이야기한다.

2부에서는 유럽이 주도한 '근대화의 세계화'는 '폭력의 세계화'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질적인 문명권 안으로 뚫고 들어갈 때는 폭력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인도에 도착한 바스코 다 가마는 적 800명의 귀와 코, 손을 잘라 이 지역 지배자에게 보내면서 카레라이스를 해먹으라고 말했다. 포루트갈 총독들은 여자들의 코를 자르고 손목을 잘랐다.

노예선을 타고 아메리카로 끌려간 1천만명의 노예는 근대 세계의 참혹한 비극 중 하나다. 노예 경매에 나온 여성과 아이의 모습.

3부에서는 세계 해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했던, 최초의 프롤레타리아선원들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 '낭만적 의미의 마도로스'는 없다. 죽음의 공포와 질병, 저임금에 시달린 노동자 집단이 아니었다면 전지구적 자본주의 출범과 근대 세계 문명의 형성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한정된 공간에서 감시와 억압이 일상화된 생활을 해야 했던 선원들은 장차 출현하게 될 공장노동자의 선구였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작동 원리들은 이미 바다위에서 실험 중이었다는 분석도 곁들였다.

'해적'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다. 바르솔로뮤로 버츠 휘하의 선원들이 작성한 '해적 규약'은 평등지향적인 특이한 '해적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말한다.

근대사의 비극중 하나인 '노예제도' 역시 바다가 만들어낸 산물이다. 1천만명에 가까운 아프리카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로 끌려간 일은 세계 근대사의 어두운 그림자다.

책은 그밖에 후추, 차, 치즈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도 근대 해상 팽창을 통해 전 세계가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임을 이야기하며 현재도 진행중인 '전염병의 세계화'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대항해 시대는 전지구적 폭력의 시대였고 가공할 파괴를 초래했지만 동시에 창조적인 대응을 낳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 세계사적 흐름을 분석하는 우리식의 현명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학문적 논쟁 만큼이나 일반 교양 독자들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한 저자의 의도는 성공한 듯 보인다. 소개되는 내용들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쉽게 쓰여진 글은 책을 손에서 떼기 어렵게 만든다.

각 장마다 내용을 보강하는 사료와 기존의 정설을 반박하는 자료를 박스형식으로 덧붙이고, 생생한 도판을 실은 점도 돋보인다. 〈산처럼·1만 8천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세계적 건축물과의 대화

### '공간에게 말을 걸다'

세계적인 건축, 그림, 영화에서 공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칭 아웃사이더 건축가 조재현씨가 '공간에게 말을 걸다'를 통해 '공간과 내면의 대화'를 나누는, 아주 독특한 시도를 했다.

건축의 기본이 되는 공간과 형태의 구성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물리적인 공간을 심리적인 공간으로 섬세하게 보여준 건축교양서다.

저자는 각 공간유형에 맞는 사례를 건축(약 700가지)·그림(30점)·영화(약 400장면)에서 찾아내고, 세계적인 건축물 150장을 직접 스케치했다. 책에 담은 사진만 800컷에 달한다.

〈멘토프레스·2만원〉

/김대성기자 bigkim@

#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소시민의 투쟁

## 비포 아담
## 버닝 데이라이트
## 강철군화

### 잭 런던 지음· 이성은 등 옮김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사회가 마비되자 지배계급은 몇몇 주요 노동조합을 매수한 뒤 나머지 노동조합을 하나하나 무너트리려 한다. 사람들은 노동자들의 결속을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강철군화'로 상징되는 지배계급에 의해 무자비하게 탄압당한다.

한 때 대학 신입생들의 필독서였던 미국의 대표 이야기꾼 잭 런던(1876~1916년)의 '강철군화'의 내용이다.

그의 대표작들이 한꺼번에 출간됐다. 그는 19~20세기 초 미국 문학의 중심에 서 있던 작가이다. 그는 대자연과 휴머니즘,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소시민의 투쟁 등을 그렸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강철군화'(곽영미 옮김)와 더불어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비포 아담'(이성은 옮김)과 '버닝 데이라이트'(정주연 옮김)가 각각 출간됐다.

지난 1907년에 출간된 '비포 아담'은 그의 초기작으로, 선사시대 원시인류의 삶을 들려준다. 그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원시인류의 언어와 생활, 사랑 등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생존, 짝짓기, 놀이, 살육 등을 통해 오늘날을 비추는 이야기들을 담았다.

한 소년이 밤마다 고통스런 꿈을 꾸는데, 소설은 소년의 원시적인 고통을 추적한다.

1910년작 '버닝 데이라이트'는 자본주의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휴머니즘을 담은 소설이다. 승부욕이 강한 주인공이 알래스카의 클론다이크 지역에서 금을 캐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탐욕을 꼬집었다.

강한 승리욕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알래스카에서 금 캐기와 밀가루 판매로 큰 성공을 거둔 버닝은 진흙탕 같은 도시에서 점점 냉혹하고 탐욕스러운 도시인이 되어간다.

〈궁리·9천800원~1만2천800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새책

▲괜찮아, 웃을 수 있으니까=가수와 배우, 개그맨, 아나운서 등 유명 방송인 24명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문세와 손미나, 김수미, 이홍렬, 이숙영, 임백천, 이만기 등 방송인들이 꿈을 이뤄내기까지의 도전과 인생 이야기를 통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로한다. '괜찮아' 시리즈의 마지막 책. 〈마음의 숲·1만900원〉

▲오수보의 자전거 이야기-현장에서 보는 자전거 정책=자전거 관련 정책을 꾸준히 연구해온 오수보씨가 직접 체험하고 알기 쉽게 풀어쓴 자전거 현장보고서. 정책 담당자나 '저탄소 녹색 성장운동'을 펼치는 활동가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다. 직접 촬영한 사진과 알기 쉬운 설명을 담은 정보가 알차다.〈엘빅미디어· 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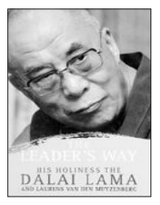
▲천추태후 역사 그대로=고려 태조 왕건의 손녀이자 성종의 누이인 천추태후를 역사적으로 조명했다. 음탕하고 악랄한 여자로 묘사된 천추태후, 그녀의 치적과 삶을 꼼꼼한 사료조사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로잡는다. 최근 방영되는 동명 드라마의 과장과 왜곡도 책을 통해 비교해 볼 수 있다. 〈푸른역사· 1만5천원〉

▲현대정치의 겉과 속 =강준만 교수의 한국정치 비평서. 추상적인 정치이론 대신 우리 사회가 왜 '정치 과잉'의 사회가 되었는지, 유권자는 왜 지도자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는지, 대학입시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10가지 주제에 따라 한국정치의 면면을 날카롭게 들여다본다. 〈인물과사상사 ·1만3천원〉

▲감언이설=중국 모뚠 문학상 수상자 리얼의 대표적인 장편소설. 항일전쟁에서 죽었다고 알려진 인물이 실은 오지 따왕산에 숨어 지냈다는 행적들이 시간차를 두고 의사, 수감자, 법학자 등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면서 재미를 더한다. 〈문학과 지성사·1만5천원〉

▲그땐 그 길이 왜 그리 좁았던고=한국 최초 여류 서양화가 나혜석. 일찍이 집을 나간 어머니 탓에 그의 아들 김진은 가슴속에 화를 키우며 자랐다. 하지만 아들이 보고 싶어 몸부림치다 끝내 행려병자로 삶을 마감한 어머니의 소식에 김씨는 미움의 싹을 자른다. 굴곡지고 찡한 나혜석의 가족사를 아들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해누리· 1만원〉

▲티베트 승려가 된 히피의사=왜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히피생활을 즐기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젊은 의사 에이드리언 펠만은 이런 질문에 매달리다가 티베트 승려가 되었다. 히피의사에서 티베트 승려가 되기까지 그의 회의와 방황, 불교에 귀의 등의 여정을 담았다. 〈호미·1만1천원〉



▲리더스 웨이=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경영 컨설턴트 마위젠베르흐가 새 시대를 이끌어 갈 리더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10년간 나눈 이야기를 모은 책. 기업의 리더가 자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조직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그리고 서로 연결된 세계에서 리더는 어떤 리더십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주제로 이뤄져 있다. 〈문학동네·1만3천원〉


국민공인중개사
☎ 핸 011-635-7939, 010-2810-6103
(공시지가 이하 및 급 매물 중개 전문)
공시지가2억 매매가1억2천 만원
▶상업지역 130P 삼각동
공시지가1억7천 매매가1억4천5백 만원
▶대지 180P 북구 두암동 한옥
공시지가+건물과표12억5천 매매가7억5천
▶ 45m도로 접 목욕탕 및 복합상가+주택
북구 대 220p 건 400P
분양가8억 아파트1300세대 상가매매가2억5천
▶ 35m도로 접 1층 상가 건물 약 100p 땅 지분 93p
한의원 내과 적합
공시지가+건물과표6억 매매가3억5천
▶ 현재 한의원 경영 중 대 130p 건 230p
공시지가+건물과표7억 매매가4억2천
▶ 대 100p 건 300p
상업지역 팔약95p 공시지가3억5천 매매가2억4천
▶ 30m 도로 접
감정가3억8천 매매가2억
▶ 장성 대 270p 건 180p
▶ 1층 점포 6칸 별도 주택 2동
▶ 2층 사무실
32억 빌딩급매
▶ 대 200p 건 450p
▶ 보 8억원 월2350만원 융 13억포함
화순주유소급매
▶ 대 600p 세차시설 카센터 주유기 12대
▶ 매 12억 융자 6억포함
화순,절터,요양원,별장부지
▶ 9500p 현재 황토방 창고관리실
▶ 주택조경수 식재 딱 4억5천
담양임야목장,별장
▶ 100000p 4억7천
♣공시지가 이하 급 매물 접수 환영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합 수완지구 건축상담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광산구 신가동 답 2738㎡ 대로변 매매가 26억
▶광산구 운수동 답 4145㎡ 매매가 8억
▶수완지구 333-1(명의변경가능) 60미터 대로변 상업용지, 3년도로 주차장인접 720㎡ 3.3㎡당 600만원
▶수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 정문 입구 상업용지 500㎡ ㎡당 210만
▶수완지구 단일평형 170세대 정문앞 이주자택지 330㎡ 3.3㎡당 450만원
상가·건물매매
▶수완동 현진상가 1층 94㎡ 초중고인접 미용실 문구 분식 적합 매매가 2억3백(입대가)
▶수완지구 주공상가
* 996세대 배후 3,200여세대 중심 1층 67.5㎡(20.42평), 명의변경 가능 매가 : 5억 5천, 대출 : 2~4억 가능
* 632세대 배후 3,200여세대 중심 1층 101.64㎡(30.75평), 명의변경 가능 매가 : 5억 8천, 대출 : 2~4억 가능
* 968세대 배후 3,200여세대 중심 2층 35.5㎡ 매가 : 9천, 대출 : 4~5천 가능
노블메디컬센터 임대분양
▶수완지구 중심상권
-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000㎡
- 1층 : 약국, 전시장, 안경점, 부동산, 이동통신업
- 2~5층 : 병의원(내과, 소아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등) 임대중(평수 다양)
- 원내 지하주차장 및 원외 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100% 확보
※1층 파리바게뜨 입점확정
6~8층 : 치과병원(임플란트전문) 개원 확정
◐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

대표:성 봉 규 (중개등록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겸무교수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전 조선대학교 경제교육원 제4대 원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주) 사단법인 광주FC팬클럽 공동대표 ·전 355-81지구 전남드림아너스클럽 3대회장
·전 광남일보 지점위원장 ·현 355-81지구 자대위원장
·전 사)광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상가 주택,숙박시설,근린시설 (최고의 유동 전문가 추천 물건 대량 확보)
(표 내용 생략)
원 룸 매가가 (투자,부동산 침체기는 최고의 투자처)
(표 내용 생략)
주 택(빌딩,단독,고급전원주택,별장)
(표 내용 생략)
아 파 트 최고의 입지 최고의 분양가 (청약상담)
(표 내용 생략)
숙박시설 전문가 (펜션상담)
(표 내용 생략)
토 지 (대지, 농지 ) 투자의 투자은 상담초대
(표 내용 생략)
해경법률경매 위치: 법원정문앞
T:062)225-2665 H,P:011-605-7777 ·광주 전남권 경매 전문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핸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상무지구 토지120평 건물554평 보증금 2억/월세2000만원-매가32억
• 토지200평 건물 725평 보증금 37억/월세1,700만원-매가72억
• 토지600평 건물1,300평 보증금 37억/월세3,000만원 융자 12억 매가 78억
• 토지300평 건물 970평 매매가 68억
• 현금 5억으로 사우나 헬스클럽 운영하실 분
▶토지(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사옥 및 병원 학원부지 등)
• 2,800㎡(850평 - 매가평당1,300만원
• 727㎡(220평) - 평당 1,200만원
• 450㎡(136평) - 평당 850만원
• 833㎡(250평) - 평당 1,250만원
• 611㎡(185평) - 평당 680만원
▶기타용도
• (농장) 그린밸트 73,000㎡(2만2천평 평당 9만원 (동산동)
• (장등동)주거지역 3,760㎡(1,140평 평당 40만
• (전원주택지) 화순서성리 전원주택지 분양 평당 65만원 (18세대 동호인 주택으로 적합)
상무지구
사무실 임대(신축).
위 치:시청앞 주택공사 등기소 주변
권장업종:금융업소,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사무실등
맛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번영 공인중개사
모 텔
전 문 업 종
신축모텔, 구모텔
무인모텔, 사우나
고시텔, 원 룸
독서실, 펜션
전문컨설팅
부지, 설계, 허가
시공, 건설, 리모델링
시설, 비품, 영업상담
임대물건, 임차인
매도물건, 매수인
★24시간접수상담★
☎(代) 062)531-4665
상 담 062)515-0030
동림2지구동림병원앞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5210 핸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앞,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올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